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¹⁾

최정원 연구위원
이지연 부연구위원

요약

조사목적 ▶ 코로나-19 기간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면 교류 활동이 장시간 중단되며 젊은 세대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됨. 코로나-19 국면에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보낸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을 세대 비교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MZ세대의 사회성에 배태된 특수성과 보편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들 세대의 사회성 위축 여부 등을 확인함.

조사대상 ▶

구분	Z세대			M세대		X세대
	후기		전기	후기	전기	
설명	중고 재학 10대 학생 청소년	전국 꿈드림센터 등록 10대 학교 밖 청소년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대학원 재적 후기 청소년	1965-1995년생 성인남녀 중 조사 시점 기준 취 · 창업자		
표본 수	1,471명	400명	('96~'03년생) 800명	('89~'95년생) 800명	('83~'88년생) 500명	('65~'82년생) 1,300명

조사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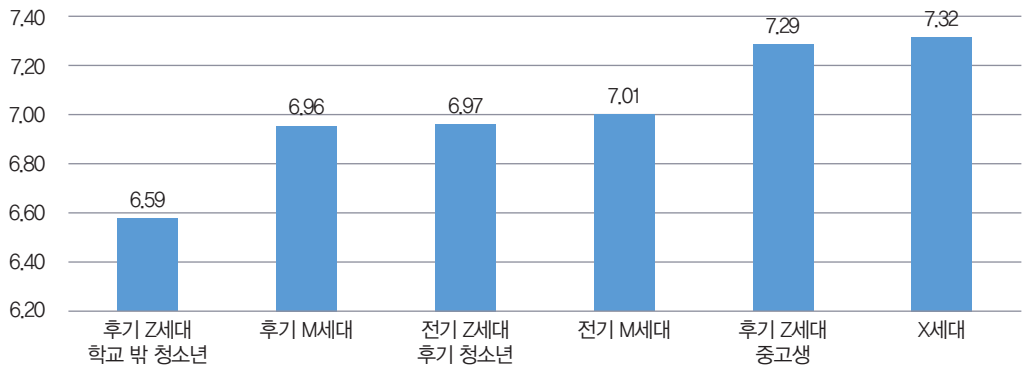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2년 6월~7월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과제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사회성에 대한 인식

■ 사회성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 자신의 현(現) 사회성 수준을 11점 척도(0점~10점)로 자기 평정한 결과, X세대와 후기 Z세대 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각각 7.32점, 7.29점으로 가장 높았음.
-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 기간 학교에서의 대면 교류 중단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우려하지만 자신의 사회성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X세대와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같은 10대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은 또래의 학생 청소년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응답 집단 가운데서도 스스로 평가한 사회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질문: 현재 귀하의 사회성은 0점~10점 중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 자신의 현(現) 사회성 수준에 대한 세대별 평가 결과

■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성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성 변화 양상과 관련해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은 여타 집단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줌.
- 이러한 인식은 사회성 전반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구성하는 13개 하위 요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됨.
- 반면 M, X세대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성 변화 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표 1 코로나-19 이후 사회성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회성전반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준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후기 Z세대 중고생	3.30	3.18	3.12	3.24	3.30	3.29	3.40	3.06	3.23	3.19	3.35	3.33	3.36	3.33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3.05	2.99	2.91	3.07	2.96	2.89	3.38	2.91	2.99	2.96	3.27	3.27	2.92	3.02
전기 Z세대 후기 청소년	3.01	2.98	3.01	3.15	3.00	2.85	3.40	2.95	3.07	2.99	3.25	3.29	2.98	3.02
후기 M세대	2.96	2.85	2.92	2.97	2.97	2.74	3.17	3.12	2.90	2.95	3.32	3.36	2.82	2.99
전기 M세대	2.96	2.95	2.90	3.10	2.91	2.81	3.27	3.05	2.95	2.95	3.21	3.22	2.80	2.95
X세대	2.89	2.83	2.86	2.98	2.90	2.72	3.14	3.00	2.87	2.90	3.21	3.26	2.73	2.92

질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귀하의 사회성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나빠졌다, 2=약간 나빠졌다, 3=변화가 없다, 4=약간 좋아졌다, 5=매우 좋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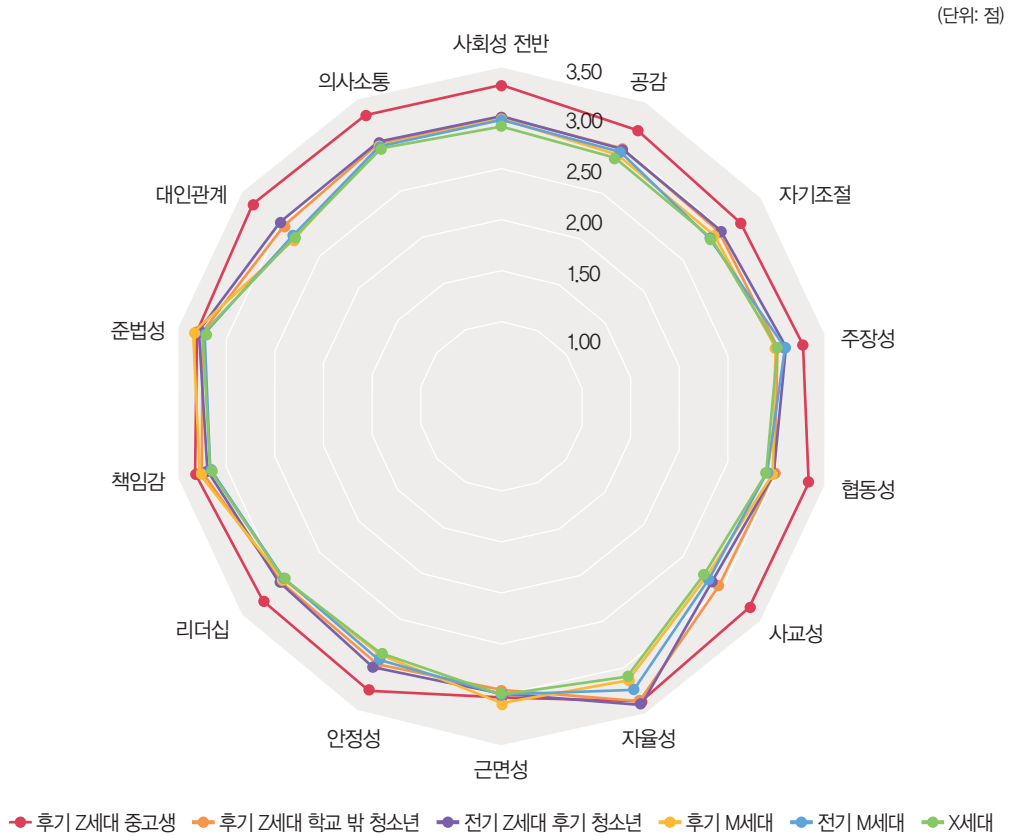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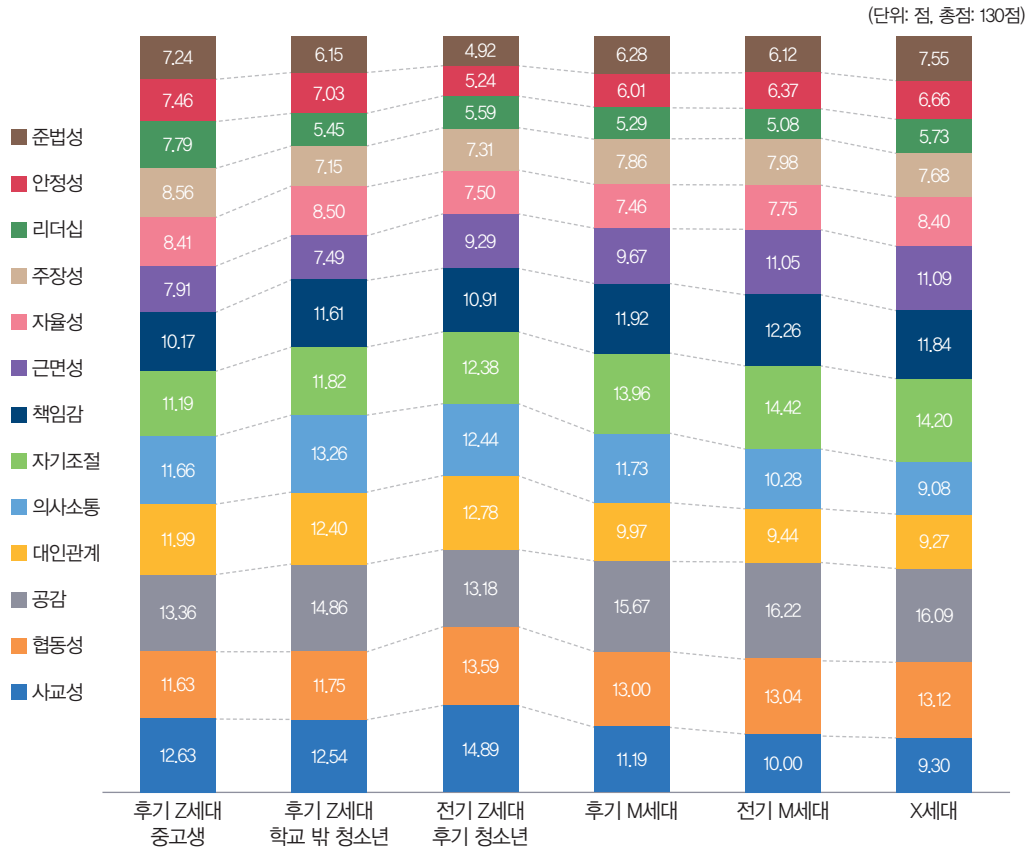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수준

■ 조직 생활을 할 때 중요한 사회성에 대한 인식

- 학교(센터),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사회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에서 Z세대는 M, X세대와 다른 경향을 나타냄.
- 후기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공통으로 공감의 중요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Z세대 대비 M, X세대 사이에서는 공감, 자기조절, 근면성, 협동성, 책임감과 같은 사회성 영역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Z세대의 경우 M, X세대 대비 대인관계, 사교성, 의사소통 등과 같은 사회성 영역의 중요성이 두드러짐.



질문: 귀하가 학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학교/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사회성 요소가 중요한가요? 항목별로 중요한 정도를 점수로 입력하되 전체 13개 항목 점수의 합이 130점이 되도록 입력해주세요(*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센터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지낼 때)

그림 3 학교/센터/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

2 사회성 발달 양상

■ 사회성 하위 영역별 발달 양상

- 사회성을 책임감, 근면성, 자율성, 사교성, 안정성, 대인관계, 협동성, 공감, 준법성,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그리고 의사소통 등 13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발달 수준을 T점수로 집단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 책임감은 M, X세대가 Z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책임감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근면성, 자율성, 사교성, 대인관계에서도 유사한 발달 추이가 확인됨. 안정성은 X세대의 점수가 가장 높지만 M, Z세대 중에서는 Z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여줌.
 - ▶ 협동성, 공감, 준법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는 Z세대가 M, X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특히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의 경우 자기조절, 리더십, 주장성 영역에서 여타 집단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보여줌.

표 2 사회성 하위 영역별 발달 수준

구분	후기 Z세대 중고생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전기 Z세대 후기 청소년	후기 M세대	전기 M세대	X세대
책임감	46.65	50.43	48.30	50.36	51.53	53.90
근면성	48.87	48.11	49.28	49.73	49.52	52.66
자율성	47.13	49.97	49.14	50.82	51.64	52.65
사교성	49.33	48.97	48.37	49.66	50.37	52.15
안정성	49.09	50.03	50.50	48.62	49.62	51.71
대인관계	49.67	48.71	48.78	49.83	50.08	51.60
협동성	49.33	51.45	50.36	49.52	48.57	50.94
공감	50.76	48.45	50.30	49.23	48.11	50.64
준법성	50.06	51.36	51.36	49.09	48.30	49.89
주장성	52.13	47.76	48.98	49.34	49.98	49.32
리더십	51.47	49.18	50.47	49.28	48.99	49.12
자기조절	52.23	49.53	51.11	48.83	48.43	48.26
의사소통	51.48	50.62	52.17	49.52	48.10	47.82

(단위: T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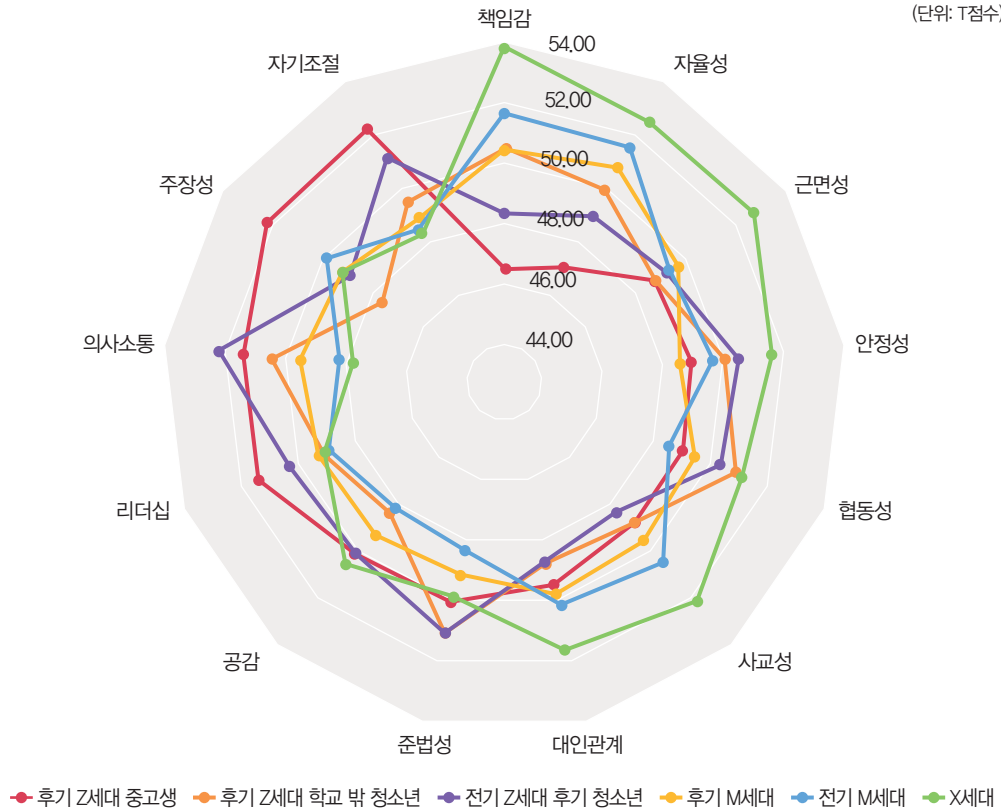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성 하위 영역별 발달 양상

- 아래 표는 각 집단에서 T점수가 50점(전체 응답 집단의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 영역을 식별한 결과임. 다만 이러한 구분이 결코 해당 사회성 영역의 결핍이나 문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어디까지나 T점수는 해당 사회성 하위 영역에서 각 세대 집단이 점유하는 상대적 위치를 보여줄 뿐이며 사회성의 결핍이나 미숙 등을 판단하는 절단점이 아님.
- ▶ Z세대 사이에서는 근면성, 대인관계, 사교성, 자율성이, M세대에서는 주장성, 근면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안정성, 의사소통, 준법성, 그리고 협동성이 공통으로, 마지막으로 X세대에서는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준법성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 T점수 기준 평균(50점)에 못 미치는 사회성 영역의 세대별 구분 결과

구분	주장성	근면성	공감	대인관계	사교성	리더십	자기조절	자율성	안정성	책임감	의사소통	준법성	협동성
Z세대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후기 청소년												
M세대	후기												
	전기												
X세대													

- ▶ 이러한 식별 결과는 각 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 양상이 다르고 이들의 균형 잡힌 사회성 함양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함. 아래 그림처럼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를 비교할 때 이 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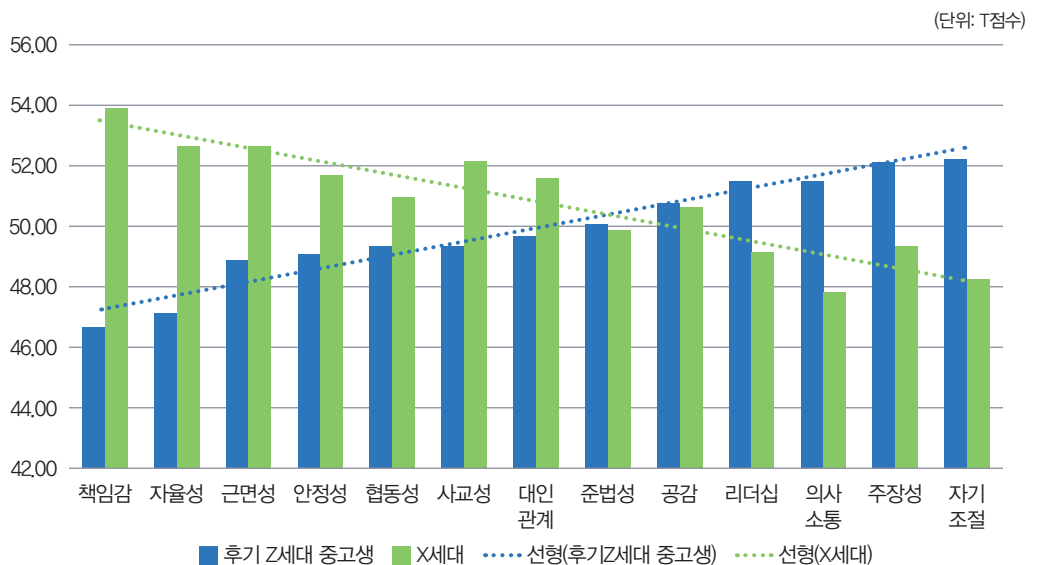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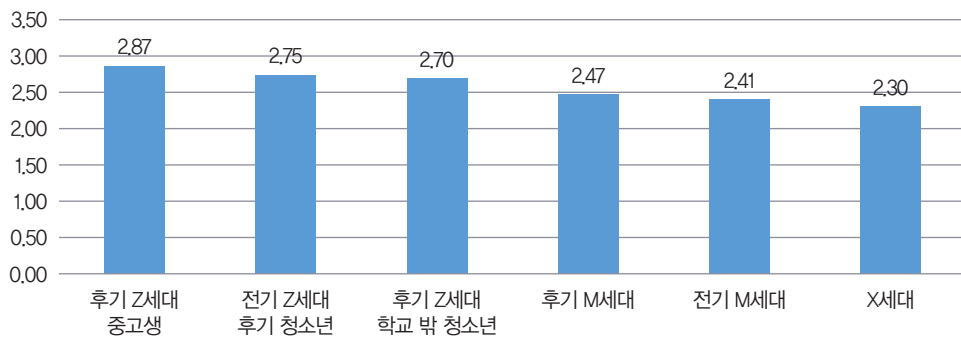


그림 5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 비교

3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중요성 및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 각 세대 집단이 하루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타인과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는 빈도를 정리한 결과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의 평균이 2.87점으로 가장 높고 X세대의 평균이 2.30점으로 가장 낮음.
- 세대 간 경향성을 보면 Z세대가 M세대보다, M세대는 X세대보다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짐.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일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온라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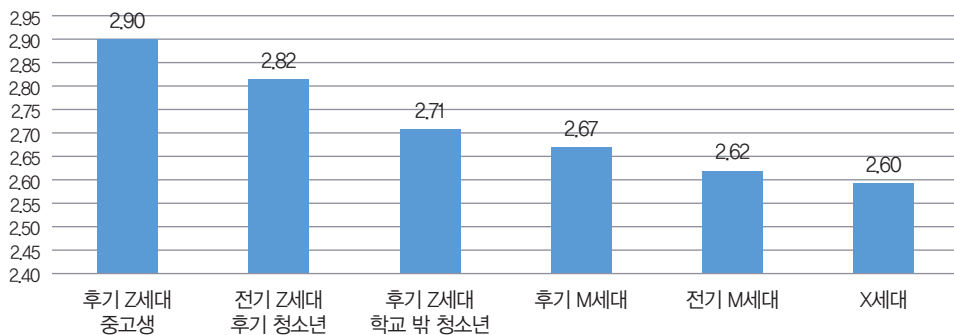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또래에 비해 하루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얼마나 합니까? 1=매우 조금한다, 2=조금 하는 편이다, 3=많이 하는 편이다, 4=매우 많이 한다

그림 6 온라인 상호작용 빈도

■ 온라인 상호작용의 중요성

- 온라인 상호작용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Z세대의 긍정적 태도가 두드러짐.
- 다른 사람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이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의 평균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2.82점, 2.71점으로 그 뒤를 이음.
- Z세대 대비 M, X세대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는데 앞서 살펴본 빈도 통계와 다른 점은 X세대가 평가한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 점수가 M세대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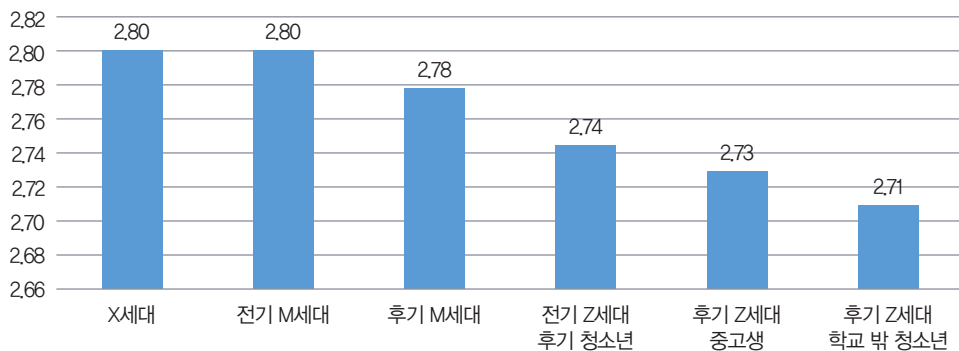


질문: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귀하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중요한 편이다, 4=매우 중요하다

그림 7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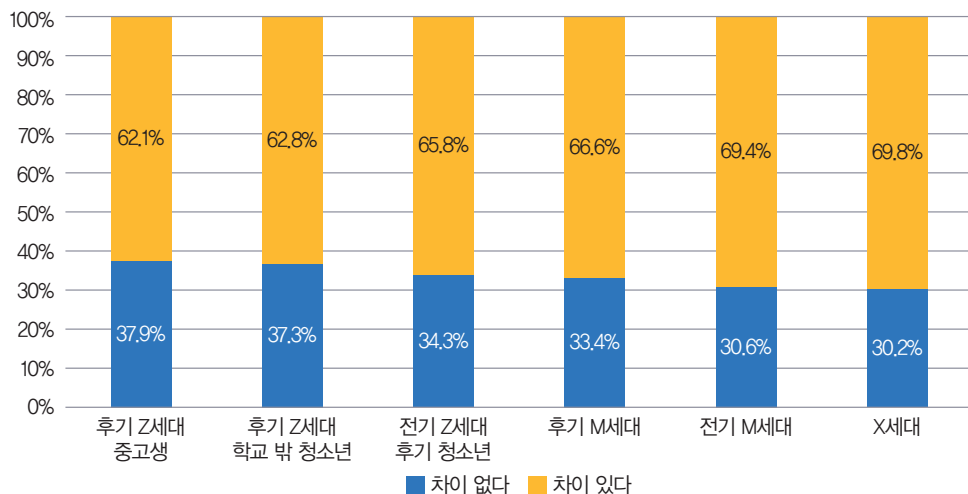
■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음.
- 집단 평균 점수를 직접 비교하거나 응답 보기를 이분형 변수(1, 2=차이가 없다, 3, 4=차이가 있다)로 처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세대별 응답자의 과반수가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이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Z세대 청소년에게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와 일상 속 중요도는 분명 M, X세대보다 높지만, 온라인 상호작용에 대한 의존도가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님.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도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의 인지적 경계는 뚜렷하게 존재함.



질문: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1=전혀 차이가 없다, 2=차이가 없는 편이다, 3=차이가 있는 편이다, 4=매우 차이가 있다

그림 8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 간의 차이 정도



차이 없다=전혀 차이가 없다+차이가 없는 편이다, 차이 있다=차이가 있는 편이다+매우 차이가 있다

그림 9 집단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유무